

Sep
2018

KEB Hana Market Monthly

- ▶ 연구위원 서정훈
02. 729. 0195 / seojh@hanafn.com
- ▶ 연구원 박정온
02. 729. 0190 / jungeunpark@hanafn.com

Sep
2018

목 차

금리 -----	03
달러/원 환율 -----	05
엔/원 환율 -----	07
유로/원 환율 -----	08
주요 국내경제 지표 -----	09
주요국 통화 대원화 환율 추이 -----	09

 **KEB 하나은행**

www.kebhana.com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 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금리

8월 동향 터키발 신흥국 금융불안 속 미-중 무역협상 결렬 및 대내적 고용지표 충격 등으로 국고채 금리는 급격한 하락세 시현

금통위의 금리인상 가능성 약화 속 미-중 무역분쟁 이슈 지속

- 8월 초, 낮아진 8월 금통위에서의 금리인상 가능성 속에 미-중 무역분쟁 불씨가 재점화 양상을 보이며 안전자산 선호 강화
 - 전월 금리인상의 소수의견 개선에도 불구하고, KDI가 향후 국내 경제에 부정적 전망을 내놓은 가운데 6월 광공업생산이 전월비 0.6% 감소하는 영향 등 대내적 경제 회복력 약화가 국고채 금리 상승 동력을 약화시키며 하락 출발
 - 또한, 연준이 8월 FOMC에서 강한 매파성향을 드러내며 9월 금리인상을 예고했음에도 미-중 무역분쟁 불씨가 재점화한 점도 국고채 금리 하락에 영향

터키발 금융불안 확대가 신흥국으로의 전이 가능성을 높임에 따라 안전자산선호 심리 강화

- 8월 중반, 터키발 금융충격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 속에 국내 7월 고용지표가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을 보임에 따라 큰 폭으로 하락
 - 8월 중반, 터키 금융불안에 따른 안전자산선호 심리의 강화로 금리 하락세 지속
 - 이어 대내적으로 고용지표가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 기록(신규 취업자 수가 2010.1월 이후 최저인 전월대비 5,000명 증가)에 따른 국내 경기 회복력 우려에 국고채 3년 금리는 하락 폭을 크게 키우며 1.9% 초반까지 급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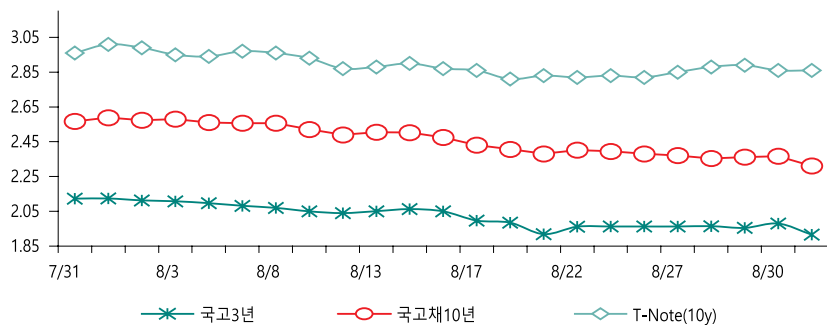
국내 고용쇼크 등 경제회복 동력 약화 속 한은의 금리 동결 결정

- 8월 후반, 미-중간 통상 협상에 대한 무역분쟁 완화 기대가 협상 결렬로 가닥이 잡히는 양상 속에 한은 금통위 금리 동결 등으로 1.9% 초반까지 하락하며 마감
 - 8월 후반, 미-중간 통상협상의 긍정적 기대 등으로 상승 전환하다 협상 결렬에 따라 재차 우려감이 확산하는 양상으로 전환
 - 여기에 월 후반, 금통위가 국내 경제지표의 부진을 고려한 금리동결 결정 등으로 국고채 금리는 1.9% 초반까지 근접하며 마감

주요 시장금리 추이

8월 평균

국고채(3년): 2.02%
 국고채(10년): 2.46%
 T-Note(10년): 2.89%



자료: 연합인포맥스, KEB하나은행

9월 전망 국고채 금리의 방향성에 대한 관심의 초점이 국내 경제지표에 맞춰지는 가운데, 상존한 대외 불확실성 이슈 등을 고려할 때 소폭 하락 흐름을 이어갈 전망

평균	2018. 1Q	2018. 2Q	2018. 3Q ^F	2018. 4Q ^F
국고채(3년, %)	2.24	2.21	2.00	2.05

- 9월 FOMC의 금리인상 가능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연준의장이 시사한 점진적 금리인상 스탠스의 선반영 영향이 이어질 전망이며 이는 국고채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최근 미국 경제내 화폐유통 속도 상승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연내 4회 금리인상은 예정 경로대로 진행될 전망
 - 그러나 전월 잭슨홀 미팅 이후 연준의장의 연내 추가 2회 금리인상(9월 FOMC 포함)에 대해 시장이 점진적 스탠스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국고채 금리는 9월 FOMC 전까지는 약보합에 머무를 전망
- 대내적으로 수출 지표는 양호한 실적을 보임에도, 고용충격이 소비자심리 위축으로 전이되며 내수회복 지연 등 불안정한 국내 경제상황에 따른 연내 기준금리 인상 전망 약화 요인이 전반적인 금리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출 실적에도 불구하고, 대내적 고용지표 충격이 소비자심리지수 하락으로 전이되는 가운데 내수회복 지연 등 국내경제의 하방압력 증가
 - 또한, 국내 물가상승률도 여전히 1%대 초반에 머물며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게 약화하고 있는 측면이 국고채 금리의 전반적 하락을 견인할 전망
- 대외적 미-중 무역갈등 이슈의 재점화 가능성 상존 속에 대내적 8월 금통위 소수의견의 연속적 개선에도 국내경제 지표 부진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며 국고채 금리는 소폭 하락 흐름을 이어갈 전망
 -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 이슈 상존에 따른 불확실성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에 영향을 미칠 전망
 - 금통위에서의 금리인상 소수의견 개선에도 상기 대외 요인과 함께 대내적 2분기 성장률 하향 등 국내 경기부진 이슈가 채권시장의 하반기 주요 이슈 초점이라는 측면에서 국고채 금리 하방압력을 높일 전망

건조한 미국 경기를 반영한 9월 FOMC 금리인상 가능성에도 시장은 비둘기적이었던 연준의장의 스탠스에 주목하는 양상

전월 고용지표 충격 이후 국내 경기회복 모멘텀의 약화 추세도 국고채 금리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9월 국고채(3년) 금리는 1.85%~2.05% 범위 내 예상

상승 요인	하락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적으로 보이는 9월 FOMC 금리인상 · 금통위의 소수의견 개선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준의장의 비둘기적 스탠스 · 미-중 무역분쟁 불확실성 지속 · 한국경제 회복 모멘텀 약세 확대

달러/원 환율

8월 동향 및 연준의장의 비둘기파적 잭슨홀 연설 등으로 하락

월 초,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 소식 및 연준회의의 매파적 결과 등으로 달러 강세

미국의 터키 제재에 따른 금융불안에도 미-중 간 무역협상 기대가 달러화의 약세 국면을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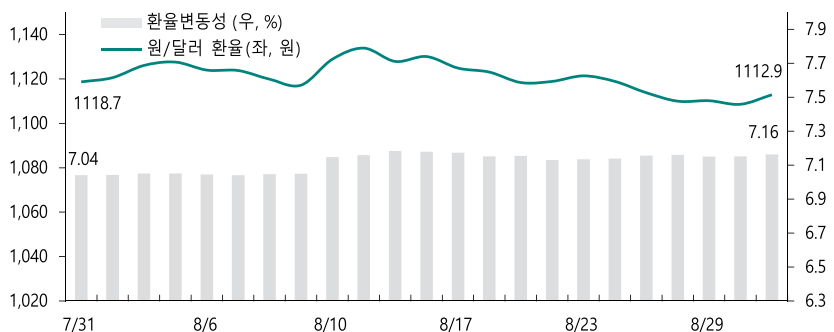
미-멕시코간 NAFTA 재협상 타결과 잭슨홀 미팅의 비둘기파적 연준의장 연설이 위험선호 심리에 영향을 미침

- 월 초, 미국의 추가 관세부과 소식, 연준의 강한 매파적 금리인상 가능성 확대 등으로 1,120원대까지 상승하며 출발
 - 8월 초, 미-중 무역협상의 물밑 접촉 기대에도 이내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 소식으로 상승 출발
 - 이어 FOMC 회의 결과, 연준의 금리동결 결정에도 9월 금리인상 예고에 따른 달러 강세 영향으로 상승 추세 지속
- 8월 중반, 미국의 러시아, 터키 제재 등에 따른 신흥국 금융위기 우려에 달러 강세가 지속됐으나, 미-중간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로 달러 강세가 진정되는 양상 시현
 - 미국의 對터키 제재에 따른 금융불안 속에 긴급 유동성이 공급되었음에도 신흥국 금융위기 전이 가능성에 대한 우려 지속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며 달러/원 환율은 1,130원 돌파
 - 이후,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진행에 따른 기대감으로 시장 심리가 달러 약세로 선회하며 1,120원대 초반으로 되돌림 시현
- 8월 후반, NAFTA 재협상 타결 소식과 연준의장의 비둘기파적 잭슨홀 연설 등으로 1,100원대까지 진입 후, 금통위 금리동결 결정으로 후반 상승 전환
 - 8월 후반, 미-중 무역협상 결렬 소식이 있었으나, 미-멕시코 무역협상 타결 소식 등이 위험선호 심리를 확대하며 환율은 1,110원대 초반까지 하락
 - 이어 연준의장의 잭슨홀 미팅에서의 연설이 비둘기파적으로 해석되며 1,100원을 하회하였으나, 월 후반 한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영향이 반영되며 환율은 전월 대비 5.8원 하락한 1,112.9원으로 마감

8월 달러/원 평균환율 : 1,120.9원

8월말 달러/원 환율 : 1,112.9원

달러/원 환율 추이 및 환율 변동성



자료: 연합인포맥스, KEB하나은행

9월 전망 월초 연준의장의 비둘기적 잭슨홀 연설에 따른 달러 약세에서 월 후반으로 가며 FOMC 금리인상 및 대외 불확실성 상존 영향으로 달러 강세 전환할 것으로 예상

평균	2018. 1Q	2018. 2Q	2018. 3Q ^F	2018. 4Q ^F
달러/원 환율(원)	1,072.3	1,079.9	1,120	1,125

- 중국에 대한 미국의 2,000억 달러 추가 관세 이슈가 상존하는 상황이나, 최근 중국이 위안화 고시 산정을 변경함에 따른 강세 전망이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원화의 약세 흐름을 다소 제한할 전망
 - 미국이 멕시코, 캐나다 등과의 무역협상에서 성과를 보였음에도, 여전히 중국에 대한 추가 2,000억 달러 관세 부과 여부가 미-중 무역갈등의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는 점이 월 초반 원화 약세에 영향을 미칠 전망
 - 그러나 위안화에 대한 원화의 동조흐름이 강화된 상황에서 중국이 위안화 산정 고시 기준을 변경하며 강세흐름을 유도하고 있는 점은 환율 상승을 제한할 전망
- 9월 연준의 금리인상이 확실시되는 점은 달러 강세 요인이나 8월 잭슨홀 연준의장 연설이 비둘기적이었던 점은 초반 달러 약세에 영향을 미칠 전망
 - 연준의장의 잭슨홀 미팅에서의 경기 확장세에 대한 자신감 속에 점진적 금리인상시사가 시장에 비둘기적 스탠스로 인식된 점은 초반 달러 약세를 견인할 전망
 - 그러나 최근 화폐 유통속도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견조한 상승과 미국 경기 확장세 지속 영향으로 9월 금리인상과 연내 4회 인상이 탄력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월 후반 달러 강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상대적인 한국경제 지표의 부진과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이 크게 약화된 측면은 대내적 관점에서 원화 약세에 영향을 미칠 전망
 - 연초 이후 견조한 수출에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무역수지가 둔화하는 가운데 8월 국내 고용 충격 등으로 회복 모멘텀의 약화 지속 예상
 - 이를 고려한 8월 금통위 금리 동결 이후로도 향후 인상 시그널이 약화된 점 등이 대내금리차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며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상존한 대외 여건 등을 고려 시 1,110원~1,125원의 좁은 범위 등락이 예상됨

월초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 이슈가 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이나 중국 인민은행의 위안화 고시산정 변경에 따른 통화 강세가 원화약세를 제한할 전망

연준의장의 전월 잭슨홀 연설의 비둘기적 스탠스에 따른 점은 초반 달러 약세를 견인하겠으나 이후 9월 FOMC가 다가오며 달러 강세 전환 전망

9월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100원~1,125원 전망

상승 요인	하락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대중국 추가관세 이슈 불확실성 · 연준의 확정적인 9월 금리인상 가능성 · 한-미 금리차 역전 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월 FOMC 금리인상 가능성 속에 연준의장의 비둘기파적 스탠스의 시장 선반영 영향 · 금등쉴림시 외환당국의 미세조정 가능성 · 위안화 강세 흐름 전환 전망

엔/원 환율

8월 동향 월 중반까지 글로벌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가 엔화 강세 견인하였으나 이후 불안 요인 진정에 따라 약세 전환

엔/원 환율 전월대비 0.7원 상승한 1,003.3원에 마감

- 글로벌 무역분쟁 및 터키발 금융시장 불안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엔/원 환율 상승하였으나 월 중반 이후 불안 심리 진정되며 하락 전환
 - 월 초, 미국의 중국 제품 관세율 인상 및 터키발 금융불안 등 엔화 강세요인과 위안화 절하에 연동된 원화 약세가 엔/원 환율 상승 견인
 - 월 중반, 터키 경제불안의 신흥국 전이 우려에 따른 환율 상승압력 속 미-중 무역협상 재개 소식과 그에 따른 위안화 약세 진정 영향이 환율 상승 제한
 - 월 후반, 미국의 멕시코와의 무역협정 타결 및 캐나다와의 NAFTA 합의 가능성 등 글로벌 무역분쟁 완화에 따른 위험선호가 엔/원 환율 하락 견인

9월 전망 위험선호에 따른 엔화 약세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 자민당 선거 및 9월 FOMC 등 이벤트를 앞두고 경계감을 높일 전망. 월 후반 미국 중간선거 전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분쟁 격화 가능성이 엔화 강세를 견인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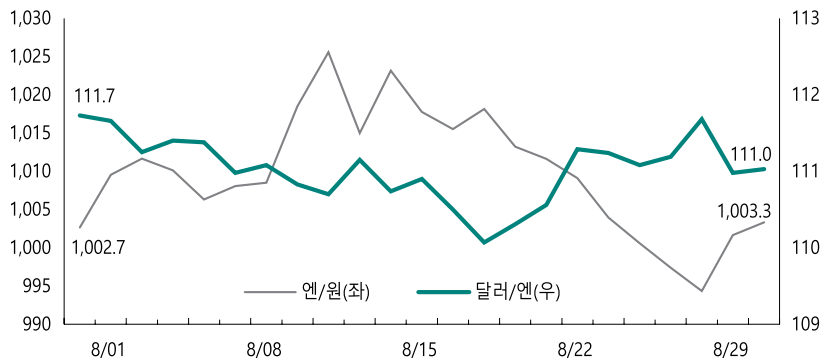
달러/엔 환율 상승 예상

- 글로벌 불안 요인의 확대와 진정 속 투자심리 변화가 환율 변동성을 높이는 가운데 9월 FOMC 금리인상 결정이 달러/엔 환율 상승을 견인할 전망
 - 미국 9월 금리인상 전망에도 불구하고 향후 통화정책 스탠스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며 달러/엔 환율은 제한된 상승을 시현할 전망. 다만, 12월 금리인상 전망이 유지될 전망 등으로 월 후반 상승폭을 키울 것으로 보임
 - 터키불안 및 무역분쟁 등 다소 진정된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 일본 자민당 선거(9/20) 전후 정치 불확실성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달러/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

엔/원 환율 하락 후 상승 전망

- 엔/원 환율은 월 후반으로 갈수록 글로벌 불안 요인에 주목하며 상승할 전망
 - 월 초 금융시장 불안 진정에 따른 위험선호가 엔/원 환율 하락을 견인하는 가운데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불확실성에 따른 환율 변동성 확대 전망
 - 월 후반으로 갈수록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분쟁 격화 가능성과 터키 불확실성 상존 등이 환율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엔/원 및 달러/엔 환율 추이



8월 달러/엔 평균환율 : 111.0엔

8월 엔/원 평균환율 : 1,009.8원

9월 엔/원 예상 범위 : 990원~1,020원

자료: Bloomberg, 뉴욕시장 기준

유로/원 환율

8월 동향 터키발 유로존 금융불안 여파로 유로/달러 환율은 1.13달러대까지 하락, 원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유로/원 환율 큰 폭 하락 시현. 월 중반 이후 터키 우려 완화에 따른 유로 강세 영향으로 환율 상승전환

- 유로존 시중은행의 터키 익스포저 우려로 유로/원 환율은 큰 폭 하락 시현한 후 우려 진정 속 상승전환
 - 월 초, 미-중 무역분쟁 속 위안화 약세에 따른 원화 약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터키발 유로존 시중은행 불안 우려에 따른 유로화 급락으로 유로/원 환율은 1,270원대까지 하락
 - 월 중반 이후, 터키 우려 완화 속 트럼프의 연준 금리인상 비판에 따른 강달러 약화가 유로화의 큰 폭 강세를 견인함에 따라 유로/원 상승전환

유로/원 환율 전월대비 10.0원 하락한 1,300.4원에 마감

9월 전망 유로/달러 및 유로/원 환율은 터키발 불안 요인이 진정된 영향으로 추가 상승 여지 상존하나 다수의 유로화 약세 압력이 상승 제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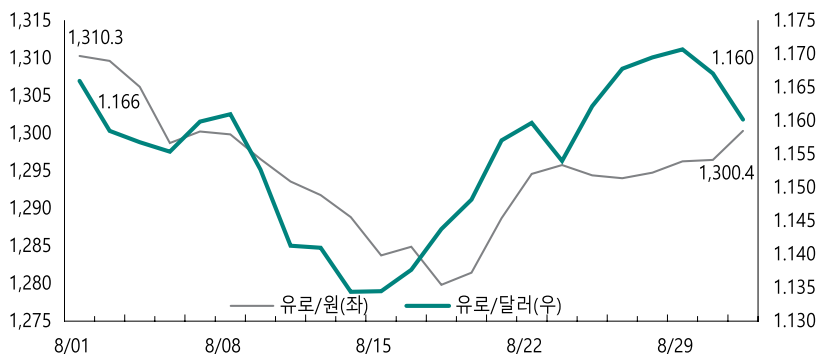
- 다수의 유로화 강세 및 약세 요인이 혼재한 가운데 유로/달러 환율은 상승 우위에서 하락 우위로 전환될 전망
 - 터키 불안 완화 속 미국 비둘기파적 통화정책 스탠스 변화 가능성이 유로/달러 환율 상승을 견인할 전망
 - 다만,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터키 금융불안, 유럽산 자동차의 미국 관세 부과 가능성, 이탈리아 정치 및 재정 불안, 연준의 12월 금리인상 전망 유지 가능성 등이 월 후반 유로/달러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유로/달러 환율의 소폭 상승 후 하락 예상

- 터키발 유로존 금융불안 진정이 유로/원 상승을 견인하겠으나, 미국과의 무역분쟁 이슈, 이탈리아 리스크 등이 상승을 제한할 전망
 - 터키 불안 완화 영향과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에 따른 위안화 약세 전환 가능성, 한국 경기 불확실성 등이 유로/원 환율 상승을 견인할 전망
 - 다만, 미-EU간 자동차 부문 무역분쟁 가능성 및 이탈리아 불안 등 유로화 약세 요인들이 환율 상승을 제한할 전망

유로/원 환율 상승 예상

유로/원 및 유로/달러 환율 추이



8월 유로/달러 평균환율 : 1,155달러

8월 유로/원 평균환율 : 1,294.8원

9월 유로/원 예상 범위 : 1,285원~1,325원

자료: Bloomberg, 뉴욕시장 기준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전년동월(기)비, [전월(기)비], 순환변동치, %

항 목	2017년	2018년				
	연간	1/4	2/4	6월	7월	8월
전 산업 생산	2.3	0.7 [0.3]	1.1 [0.7]	0.2 [-0.7]	1.2 [0.5]	
제조업	1.6	-2.8 [-1.3]	0.5 [3.0]	-0.7 [-1.0]	0.8 [0.1]	
서비스업 생산	1.9	2.6 [1.0]	2.3 [0.2]	1.7 [0.1]	2.0 [0.0]	
소매판매액	1.9	5.0	4.7	4.1	6.0	
설비투자	14.1	9.4	-5.9	-14.7	-10.4	
건건설기성액	10.1	1.5	-3.5	-6.3	-7.0	
경기선행지수	-	-	-	100.0	99.8	
실업률 (%)	3.7	4.3	3.9	3.7	3.7	
소비자물가 상승률	-	-	-	1.5 [-0.2]	1.5 [0.2]	1.4 [0.5]
경상수지 (억달러)	-	-	-	73.77		
상품수지 (억달러)	-	-	-	100.36		
수출증감률(통관기준)	-	-	-	-0.2	6.2	8.7
수입증감률(통관기준)	-	-	-	10.8	16.2	9.2
금리(국고채3년, 월평균)	-			2,172	2,096	2,018
KOSPI (월말)	-			2,326.1	2,295.3	2,322.9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증권거래소

주요국 통화 대원화 환율 추이

단위: 원

	2018.3	2018.4	2018.5	2018.6	2018.7	2018.8
미국 USD	1,063.6	1,068.2	1,077.8	1,114.6	1,118.7	1,112.9
일본 JPY(100)	999.7	978.1	991.6	1,007.0	997.6	1,003.3
유로 EUR	1,309.4	1,295.3	1,257.3	1,297.3	1,308.6	1,300.4
영국 GBP	1,487.5	1,473.9	1,436.7	1,472.7	1,461.1	1,445.4
중국 CNH	169.7	169.2	168.4	167.8	164.2	162.7

주 : CNH는 서울외환시장 월말 증가 기준, 그 외 통화의 대원화 환율은 뉴욕시장 월말 증가 기준
 자료 : 연합인포맥스, Bloomberg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18.9월)

일 (SUN)	월 (MON)	화 (TUE)	수 (WED)	목 (THU)	금 (FRI)	토 (SAT)
						1 한 8월 무역수지(\$7,006.0M) - 수출/수입 (6.2%/16.2%, YoY)
2	3	4 韓 GDP, 豪 RBA	5	6	7	8
	중 8월 Caixin 제조업 PMI(50.8) 호 7월 소매판매 (0.4%, MoM) 독 8월 Markit 제조업 PMI[F](56.1) 유 8월 Markit 제조업 PMI[F](54.6) Fed's Evans Speaks on Policy Panel in Argentina	한 GDP 2Q[F](2.9%, YoY) 8월 CPI(1.5%, YoY) 호 RBA 기준금리(1.50%) 유 7월 유로존 PPI (0.4% MoM, 3.6% YoY) 미 8월 Markit 제조업 PMI[F](54.5) 7월 건설지출(-1.1%, MoM) 8월 ISM 제조업지수(58.1) Fed's Evans Discusses Policy Normalization	한 8월 외환보유고 (\$402.45B) 중 8월 Caixin 서비스/종합PMI(52.8/52.3) 독 8월 Markit 서비스/종합 PMI[F](55.2/55.7) 유 8월 Markit 서비스/종합 PMI[F](54.4/54.4) 미 7월 무역수지(-\$46.3B) Fed's Kakari Speaks at Townhall in Bozeman, Montana	한 7월 경상수지 (\$7,377.0M) 독 7월 공장수주 (-4.0%, MoM) 미 8월 Markit 서비스/종합 PMI[F](55.2/55.0) 8월 ISM 비제조업자수(55.7) 7월 제조업수주(0.7%)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중 8월 외환보유고 (\$3,117.95B) 한 8월 고용통계 - 실업률(3.9%) - 비농업부문고용자수 변동(157K) - 시간당평균임금 (0.3%, MoM)	중 8월 무역수지(\$28.05B) - 수출/수입 (12.2%/27.3%, YoY) ☞ 9/7 계속 Fed's Kaplan Speaks at Energy Conference in Dallas Fed's Rosengren Makes Opening Remarks / Mester Moderates Panel at Boston Fed Conference
9	10	11	12	13 ECB 통화정책회의	14	15
북한 9.9절	중 8월 CPI/PPI (2.1/4.6%, YoY) 일 7월 경상수지(₩1,175.6B) 8월 핵심기계수주[P] (13.1%, MoM) 미 7월 소비자신용지수 (\$10,211B) Fed's Bostic Discusses Economic Outlook	독 9월 ZEW 경기기대지수 (72.6) 유 9월 ZEW 경기기대지수 (-11.1) 미 7월 도매재고[F]	유 7월 유로존 산업생산 [SA](-0.7%, MoM) 미 8월 PPI/Core(0.0%/0.1%, MoM) (3.3%/2.7%, YoY) Fed's Bullard Speaks to CFA Society Chicago 연준 Beige Book	일 8월 PPI(3.1% YoY) 독 8월 CPI[F] 유 ECB 기준금리(0.00%) 미 8월 CPI/Core (0.2%/0.2%, MoM) (2.9%/2.4%, YoY) 8월 재정수지(-\$76.9B)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Fed's Bostic Gives Speech on Economy and Monetary Policy	중 8월 광공업생산 (6.0%, YoY) 일 7월 광공업생산[F] 미 8월 수출/수입물가 (-0.5%/0.4%, MoM) 8월 소매판매 (0.5%, MoM) 8월 광공업생산 (0.1%, MoM) 9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P]	
16	17	18 日 금정위(-19)	19	20	21	22
	유 8월 유로존 CPI(-0.3% MoM, 2.1% YoY) 미 9월 뉴욕주 제조업지수(25.6)	BOK 금통위 8월 의사록	일 BOJ 기준금리(-0.10%) 8월 무역수지(-₩231.2B) - 수출/수입 (3.9%/14.6%, YoY)	미 9월 필라델피아연준 경기전망(11.9) 8월 경기선행지수(0.6%) 8월 기준주택매매 (5.34M, -0.7% MoM)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BOK 안정상황 점검회의 일본 자민당 총선	한 8월 PPI(2.9%, YoY) 일 8월 CPI(0.9%, YoY) 독 9월 Markit 제조업/서비스/종합PMI[P] 유 9월 Markit 제조업/서비스/종합PMI[P] 미 9월 Markit 제조업/서비스/종합PMI[P]	
23/30	24 추석	25 美 FOMC(-26)	26	27 美 GDP	28 韓 금통위	29
9/30 중 9월 제조업/비제조업/종합 PMI	독 9월 Ifo 기업환경지수 미 8월 시카고연방 국가 활동 지수(0.43) 9월 델러스연준 제조업지수	미 7월 FHFA 주택가격지수 (0.2%, MoM) 9월 리치몬드연방 제조업지수 7월 S&P/CS 20도시 주택가격 9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지수	미 FRB 기준금리 (1.75~2.00%) 8월 신규주택매매 (627k, -1.7% MoM) Fed's Powell Holds Press Conference Following FOMC Decision	독 10월 Gk 소비자신뢰지수 미 2Q 개인소비[T] 2Q GDP 연간화 QoQ[T] 8월 내구재 수주[P] - 운송제외 - 항공기제외비국방 자본재수주 8월 도매재고[P] 8월 미결주택매매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일 8월 광공업생산[P] 미 9월 시카고PMI 9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F] Fed's Williams Speaks in New York at Money Markets Conference	Fed Chair Jerome Powell Delivers Keynote at NABE Conference

* 주 : [P]-잠정치, [F]-확정치, [SA]-계절조정, ()안은 이전치



KEB Hana Market Monthly



본 자료에 대한 문의는 KEB하나은행 외환파생상품영업부 (FAX 729-0190)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KEB하나은행 외환포탈 (www.kebhana.com → 외환포탈FXKEB → 환율 → 외환시장동향 → 월별금리환율예측자료)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